

10월 전공항통계

Analyst 윤소정
02) 3787-2473
sjyoon@hmcib.com

주요 이슈와 결론

- 인천공항 국제 여객 수송객수 YoY +12.9%, 화물 수송량 YoY +10.0% 기록
- 유럽 노선 중심으로 항공화물 수송량 대폭 증가하며 역대 최대 물동량 기록
- 4분기 항공화물 성수기 글로벌 경기개선 기대감 강화되고 있어, 물동량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이어갈 것
- 항공업종 Overweight 유지. 대한항공에 대한 긍정적 관점 유지

산업 및 해당기업 추가전망

- 항공업은 1) 저유가, 원달러환율 하향안정화라는 우호적인 Macro 환경, 2)LCC 중심의 공급확대로 저렴한 티켓가격, 3)구조적인 여행수요 성장세 지속되고 있어 업종 투자 의견 Overweight 유지
- 1) 11월부터 델타항공과의 코드셰어 확대로 장거리노선 경쟁력 강화 기대, 2)인천공항 전체 화물수송량 중 약 45% 차지하는 화물부문 실적 점진적 개선 기대, 대한항공에 대한 긍정적 관점 유지

항공화물 역대 최대수송량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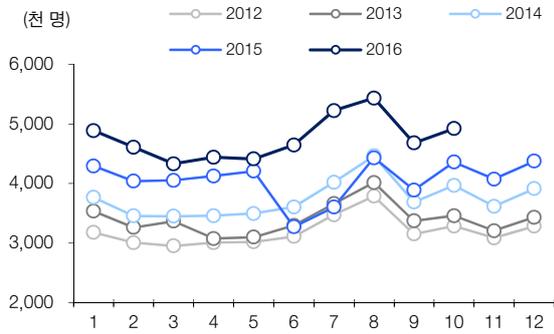
10월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송객수는 YoY +12.9% 증가하여 492.0만명을 기록했다. 비수기로 접어들어 10월이지만 양호한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해, 내국인 출국자수의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황금연휴 포진으로 내년에도 견조한 국제여객 수송량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화물 물동량의 경우 YoY +10.0% 증가해 25.4만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치상으로 역대 최대 수송량이다. 업황 턴어라운드를 논하기엔 쉽지 않지만 연말까지 물동량 YoY 플러스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객: 전공항 국제선 기준으로 외항사만 점유율 소폭 감소했으며, LCC 중심의 여객수송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양 대형항공사(+2.3%, yoy), LCC(+53.1%, yoy), 기타 외항사(+9.1%, yoy)
FSC(국내 전공항 기준 국제 여객 수송량 증감(yoy) : 대한항공 +3.5%, 아시아나항공 +0.7%, LCC(국내 전공항 기준 국제 여객 수송량 증감(yoy): 제주항공 +38.7%, 진에어 +82.8%, 에어부산 +32.3%, 이스타 +38.5%, 티웨이 +88.3%

화물: 유럽노선(+17.0%, yoy), 미주노선(+7.8%, yoy), 동남아노선(+13.2%, yoy) 중심으로 물동량이 증가해 YoY +10.0%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휴대폰, 전자제품 등 전통적인 화물운송 품목뿐 아니라, 고수익성의 신선화물 비중 증가한 부분이 물동량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수송량이 각각 YoY +5.5%, +8.1% 기록했다. 10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 중국 및 독일 PMI가 모두 기대이상의 수치 기록한 점 감안 시, 글로벌 경기개선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어 4분기에도 항공화물 플러스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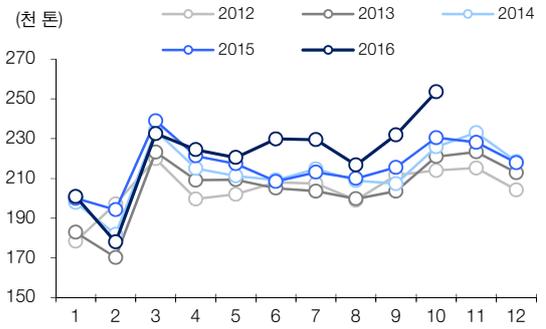
인천공항 환승객 수요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세가 대폭 둔화되어 yoy -1.2% 기록했다. 중국 노선은 3개월째 yoy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13.2%, yoy) 일본노선의 경우 한 자릿수로(-4.5%, yoy) 감소세가 대폭 축소되었다. 주변국(중국, 일본 등)공항 직항노선 확대와 경쟁력강화로 인천공항 환승객 수요는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11월 초부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코드셰어 확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환승객회복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1> 인천공항 국제선 수송객 추이(+12.9%,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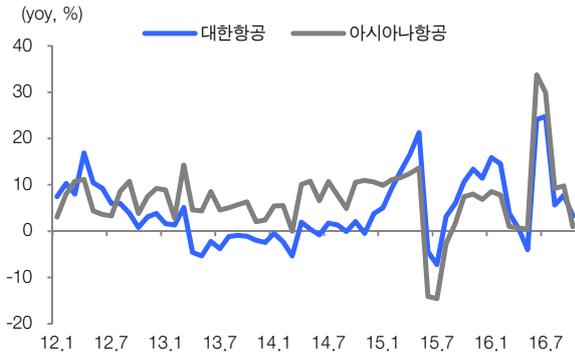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2> 인천공항 화물 수송량 추이(+10.0%,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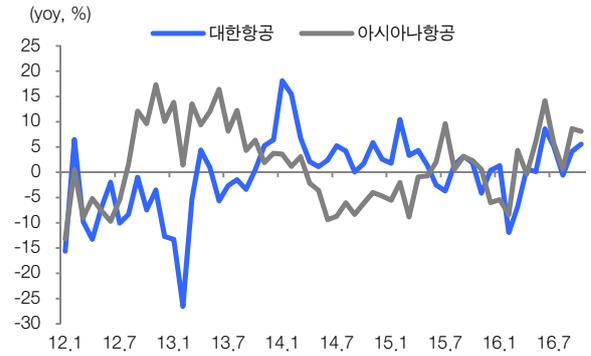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3> 국제선 여객 증감률: 대한항공 vs 아시아나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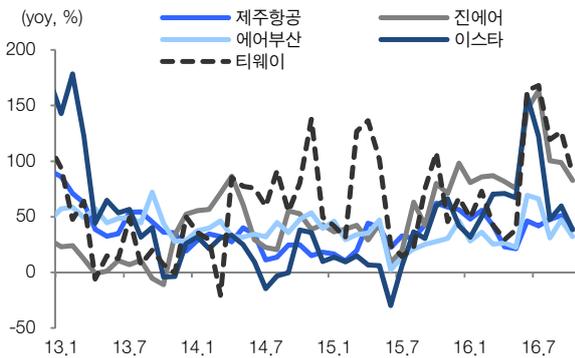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4> 화물 수송 증감률: 대한항공 vs 아시아나항공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5> 전공항기준 LCC 국제선 여객 증감률 추이



자료: 인천공항, KAC, HMC투자증권

<그림6> 인천공항 환승객 감소폭 축소(-1.2%,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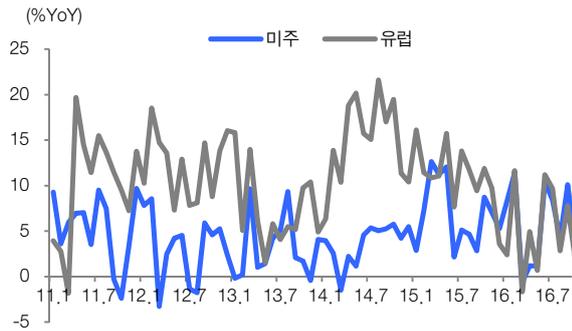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여객: 전 노선에서 증가율 둔화되었지만, 양호한 수송객 증가율 보임

10월 노선별 여객 수송객수는 MERS기저효과 및 성수기 효과 사라지면서 전 노선에서 증가율은 둔화된 흐름이다. 장거리 노선(미주 +4.0%, 유럽 +1.9%)이 특히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대양주노선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단거리노선(일본 +26.8%, 동남아 +14.2%, 중국 +6.5%, 동북아 +22.2%, yoy) 기록했다. 중국 노선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는데 중국발 저가여행규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선별 매출비중 중 중국노선이 가장 높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증가율이 대폭 둔화된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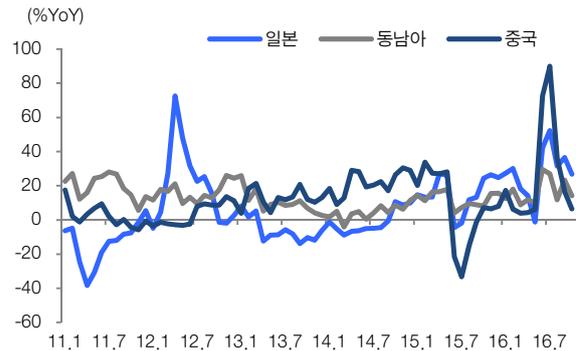
전공항 기준 LCC 트래픽 또한 증가율 둔화되었지만 양호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여객 수송량이 YoY +35.7% 성장하며 점유율기준 국내 LCC 1위를 공고히 했다. 진에어의 경우 단거리노선 위주의 타 LCC와 비교해 운항대비 여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점유율도 소폭 증가했다. 국제선 기준 국내 LCC 5개사가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항사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그림7〉 인천공항 장거리 여객수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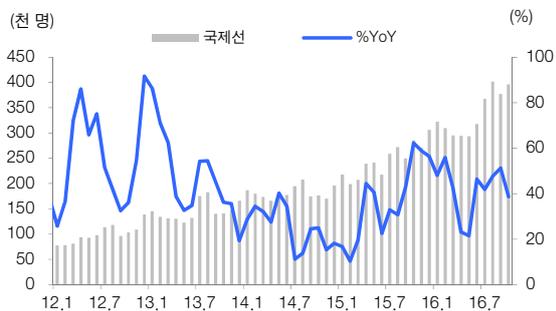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8〉 인천공항 단거리 여객수송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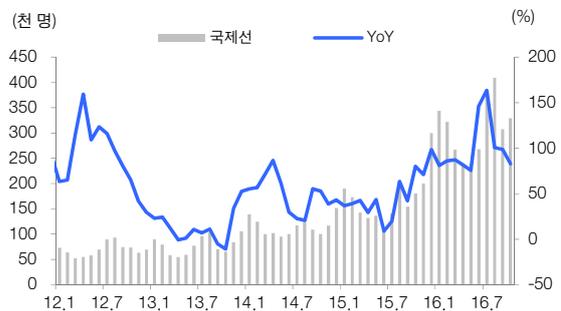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9〉 제주항공 국제선 수송객 (+38.7%,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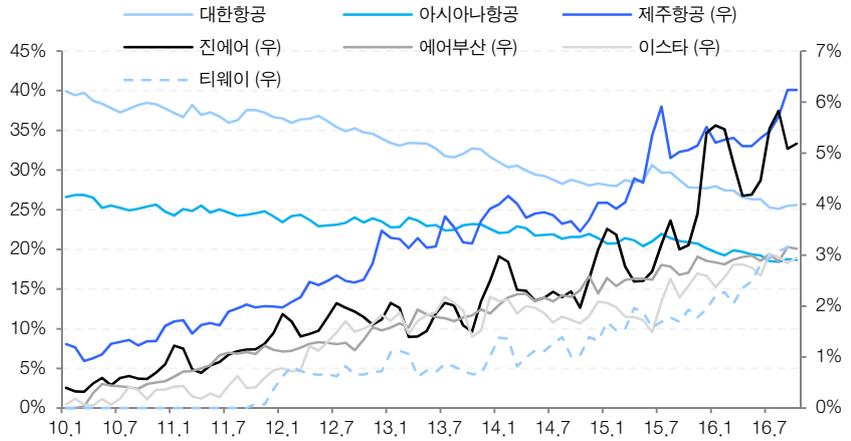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10〉 진에어 국제선 수송객 (+82.8%,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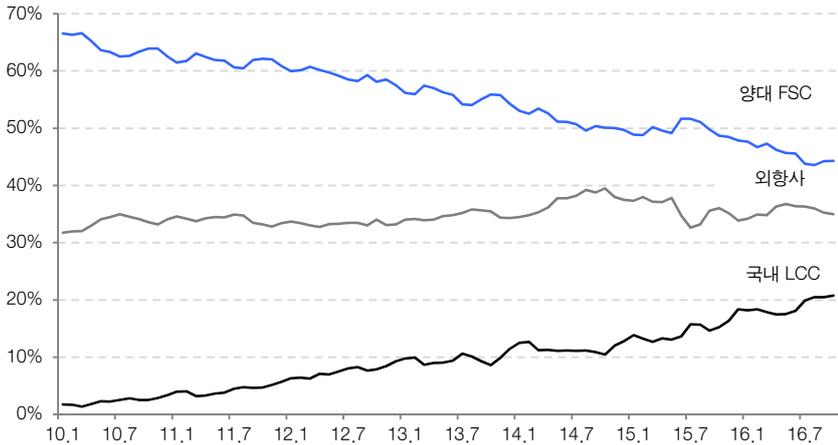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11〉 전공항 기준 항공사별 국제 여객 M/S 추이



자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12〉 전공항기준 항공사별 국제 여객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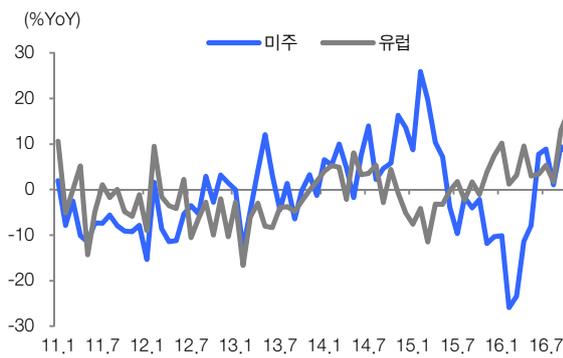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HMC투자증권

항공화물: 역대 최대 수송량 기록

노선별 항공화물 수송량은 동남아노선(+13.2%,yoy), 유럽노선(+17.0%, yoy)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체로는 YoY +10.0%의 증가율 기록해 역대 최대 수송량을 기록했다. 물동량 증가에는 휴대폰, 전자제품 등 전통적인 화물운송 품목뿐 아니라, 고수익성의 신선화물 비중이 증가해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수송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항공화물 업황은 여전히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중인 상황이라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10월 인천공항 Traffic을 보았을 때, 4분기 항공사들의 항공화물 실적 기대감을 소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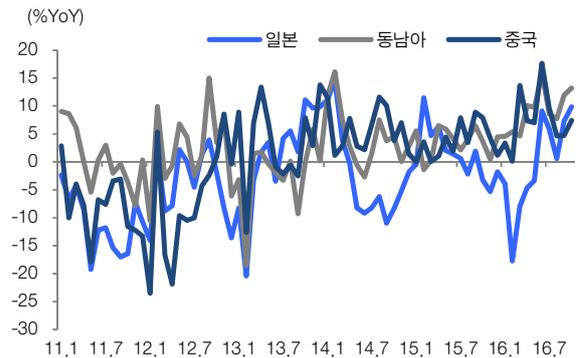
Supply Chain 변화로 단거리노선 물동량(일본노선 +9.9%, 중국노선 +7.4%, 동남아노선 +13.2%, yoy)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거리 노선 모두 양호한 흐름이며, 연말까지 물동량 기준으로 완만한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성수기에 들어서며 인천공항발 항공 화물 월별 운임도 LA항, 프랑크푸르트항 모두 9월 이후 높아진 상황이며, 미국 ISM 제조업지수도 10월 51.9, 중국 PMI 51.2, 독일 PMI 55.1 기록하며, 점진적 글로벌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13〉 인천공항 장거리 화물 수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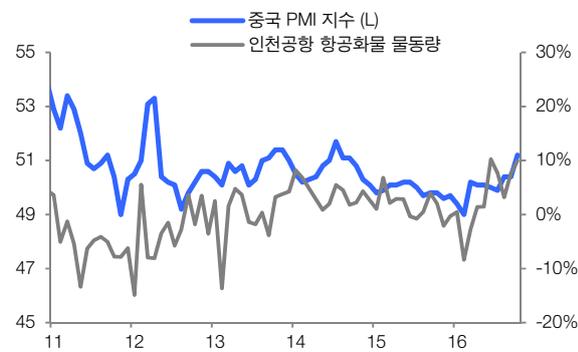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14〉 인천공항 단거리 화물 수송 증감률



자료: 인천공항, HMC투자증권

〈그림15〉 중국 PMI지수 vs 항공화물 증감률 추이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16〉 인천공항발 항공화물 월별 운임



자료: KITA, HMC투자증권

▶ Compliance Note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윤소정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 의견 분류

- ▶ 업종 투자 의견 분류: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15.10.01~2016.9.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32건	83.6%
보유	25건	15.8%
매도	1건	0.6%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